



프랑스 FRANCE
CORÉE 한국
2015 2016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주요사업 소개



JCDECASTELBAJAC + TMTF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주요사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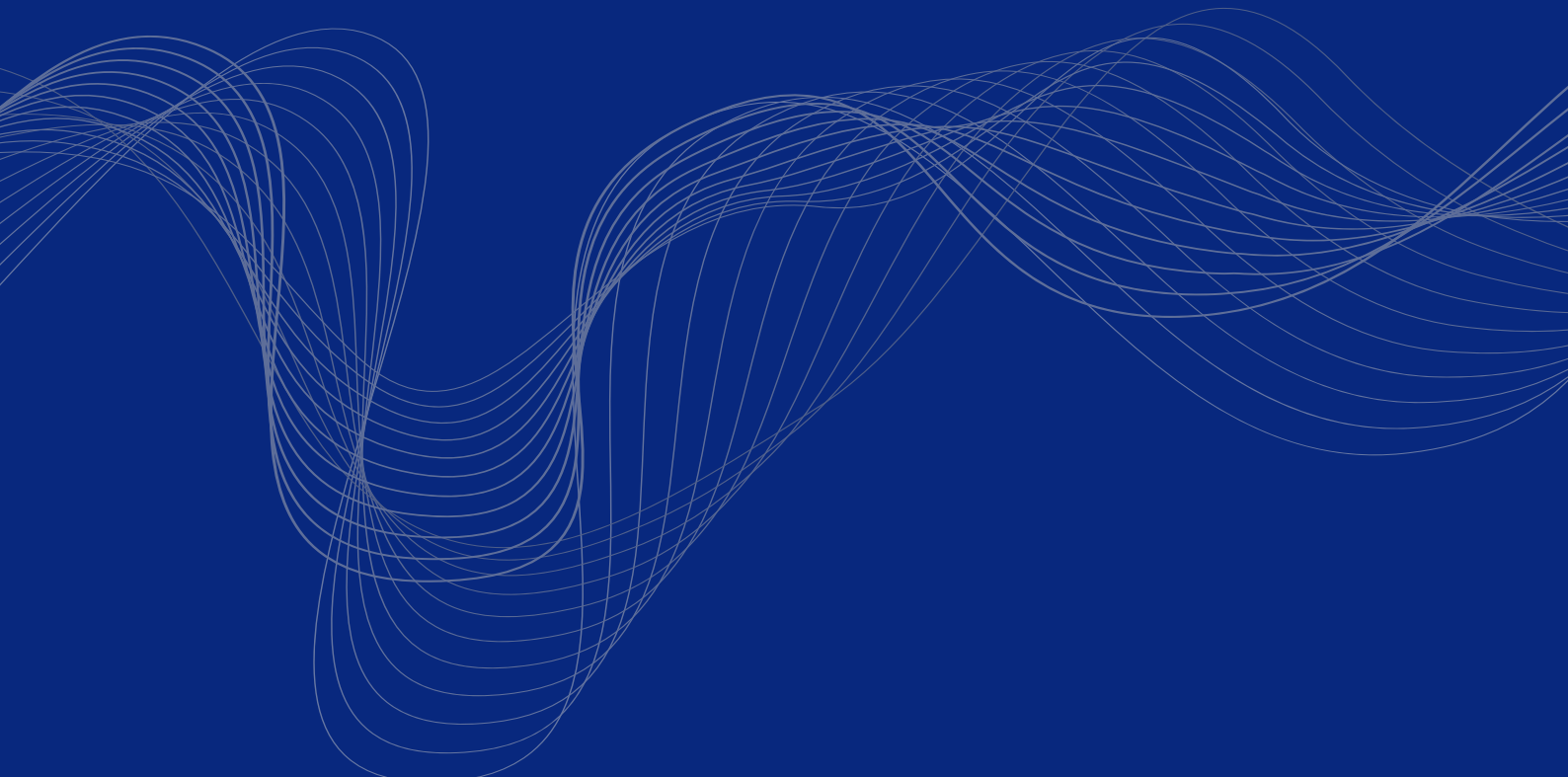
번호	분야	행사명	일시	장소	Page	
1	공연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2016.5.6-5.15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외 10곳	4	
2		댄스 엘라지(DANSE ÉLARGIE)	2016.6.11-6.12	LG아트센터	5	
3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프랑스주간’	2016.7.20-7.31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 예술극장, 마로니에 공원 등	6	
4		한국-프랑스 거리예술을 통한 협력 및 교류사업	2016.9 - 10월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7	
5		로베르토 주코(Roberto Zucco)	2016.9.23-10.16	명동예술극장	8	
6		필립 드쿠플레 무용단 <콘택트(Contact)>	2016.11.11-20	LG아트센터, 대구수성아트피아, 부산 영화의전당	9	
7		이오네스코 <코볼스>	2016. 하반기 중	국립극장	10	
8	시각	에코 시스템: 질 바비에(Echo system: Gilles Barbier)	2016.4.13-7.3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2	
9		음식을 입다 (TEXTIFOOD)	2016.5.27-7.31	DTC섬유박물관	13	
10		홈시네마(Home Cinema)	2016.6.8-10.16	대구미술관 어미홀 및 프로젝트를룸	14	
11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5	2016.6.17-10.2	성곡미술관	15	
12		카르티에 브레송전 1932-1946	2016.9.3-12.10	한미사진미술관 19층 제 1,2전시실	16	
13	음악	2016 통영국제음악당 ‘프랑스 포커스’	2016.3.25-10.28	통영국제음악당	18	
14		2016통영국제음악제 & 2016세계현대음악제-2e2m 앙상블	2016.3.31-4.1	통영국제음악당	19	
15		베르사이유 바로크 음악센터 Centre de musique baroque de Versailles(CMBV) 내한공연	2016.5.1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20	
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16.5.17-5.29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외	21	
17		한-불 수교 클래식 페스티벌	2016.8.25-9.5	부산 영화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외 3곳	22	
18		롯데 콘서트홀 개관페스티벌(LOTTE Concert Hall Opening Festival)	2016.9.20-11.22	롯데 콘서트 홀	23	
19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프랑스 포커스 프로그램 <포미에 인 자라섬 재즈>	2016.10.1-3	경기도 가평 자라섬	24	
20		다니엘 하딩 & 파리 오케스트라 (Daniel Harding & Orchestre de Paris)	2016.11.15-16	대구콘서트하우스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5	
21		영화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랑스 여성영화 120년 특별전: 알리스 기에서 셀린 시아마까지”	2016.6.2-8	메가박스 신촌 및 신촌 일대	27
22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랑스영화 특별전 ‘고몽 : 영화와 함께한 120년’	2016.7.21-31	부천시 일대 상영관(CGV,롯데시네마,부천시청상영관 등) 및 일대 행사장	28
23	교육	자매결연 학교 방문	2016.4-5월	서울관광고등학교, 서울 덕성 여자 중학교, 서울 여의도 여자 고등학교	30	
24		문학산책로	2015.9월-2016.6월	거제시 옥포	30	
25		교차된 시선	2016.4-5월	동의대 영화과, 부산	31	
26		맛의 축제	2016.5.4(예정)	그랜드 힐튼 컨벤션 센터(예정)	31	
27	학술	크레아티브 프랑스	2016.3 - 12월	교보빌딩	32	
28	과학	키메오 프로젝트 2016	2016.4.30	과천국립과학관	33	
29		물 박람회 <물과 우주(Water in Space and Planetarium Show)>	2016.9-10월 2016.11-12월	나로우주센터/과천국립과학관	33	
30	경제	한불 해양 기술포럼	2016.7.4-7.7	부산	34	
31		한불 스마트 도시포럼	2016. 하반기	서울 예정	34	
32		로보월드 박람회 프랑스관 행사	2016.10월	서울, 인천	35	
33		프렌치 테크 데이즈 인 코리아: 한-불 혁신기술 비즈니스 포럼	2016.5.30-31	서울	35	
34	미식	디네 앙 블랑	2016.6.11(서울) 2016.9.3(부산)	서울, 부산	36	



프랑스FRANCE
CORÉE 한국
2015 2016

공연예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양국 주최기관	한국 - 부산광역시 / 프랑스 - LES MOUTONS NOIRS
일시	2016년 5월 6일(금) - 15일(일)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중 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외 10곳

부산국제연극제는 매년 5월 첫 번째 금요일부터 10일간 개최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축제로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세계 각국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극제이다. 어느덧 13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연극제는 올해 <근대 작가전>이라는 주제로 '프랑스 주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빅토르 위고, 몰리에르 등 프랑스의 대표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프랑스 내 단체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1. 빅토르 위고 작 / <뤼 블라(Ruy Blas)>

<Ruy Blas>는 (1838)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 겸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운문극이다. 운문극은 감정이 고조됨에 따라 대사에 리듬이 생기며 사물이 지니는 음악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문학의 한 장르이다. 연극 <Ruy Blas> 또한 운문극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운율은 일상의 평범한 대사도 특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사용해 대사 중간에 삽입되어 흥을 돋우거나 감정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면 사이에 음악이 배치되어 서사의 리듬과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2. 안톤 체홉 작 / <사랑에 관하여(Des Amours)>

<Des Amours>는 사랑과 증오에 관한 감정을 간파하는 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광기어린 러시아 지성 체홉과 예리한 이탈리아 해학의 거장 코메디아델아르테의 성공적인 만남이 돋보인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의 연속 속에 발랄하고 유쾌한 일상 속에 집착과 증오가 내제되어 있는 블랙 코미디의 완벽한 예시를 보여준다.

3. 몰리에르 작 / <수전노(L'Avare)>

하나의 작품은 작가의 생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 작품 또한 그렇다. 극작가이자 배우이기도 한 몰리에르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집필하고 출연했지만 정작 그에 비해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당시 왕실과 교회는 좀 더 활기찬 작품을 원했지만 그는 17세기 프랑스 귀족과 교회를 비판하는 연극을 했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욕망과 동시에 자신의 자존을 두고 고민을 하던 몰리에르는 <수전노>를 집필한다. 수전노는 '돈을 지키기만 하는 노예'라는 뜻으로 프랑스 고전주의 극작가 몰리에르는 고대의 희극적 인물 '구두쇠'를 근대적으로 묘사했다.

댄스 엘라지(DANSE ÉLARGIE)

양국 주최기관	한국-LG아트센터 / 프랑스-Théâtre de la Ville - Paris, Musée de la danse - Rennes
일시	2016년 6월 11일(토) - 12일(일)
장소	LG아트센터

2010년에 시작되어 격년으로 열리는 '댄스 엘라지'는 나이나 국적, 분야(무용, 연극, 음악, 시각 예술, 건축 등에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창의력을 겨룰 수 있는 열린 개념의 무용대회이다. 2016년에는 특별히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파리의 떼아트르 드 라 빌(Théâtre de la Ville /파리시립극장), 렌의 뮤제 드 라 당스(Musée de la Danse/무용박물관)가 한국의 LG아트센터와 공동으로 서울과 파리 2개 도시에서 경연을 개최한다. 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폭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배경과 아이디어를 지닌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대회의 취지와 위상에 걸맞게 심사위원들은 무용, 연극,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일반 관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댄스 엘라지' 경연은 6월 서울과 파리에서 각기 열리며 그 이전인 2월 파리에서 열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각 15-20개의 팀들이 준비한 10분 길이의 작품을 서울의 LG아트센터 또는 파리의 떼아트르 드 라 빌 무대에서 관객들이 자리한 가운데 이를 동안 공연하는 형식으로 치뤄진다. 각 대회마다 에르메스 재단의 후원으로 총 33,500유로에 달하는 상금이 수여되며, 관객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빛을 발하는 대회이니만큼 관객들이 선정하는 상이 별도로 수여될 예정이다.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프랑스주간'

양국 주최기관	한국 - 아시테지 한국본부 / 프랑스 - 아시테지 프랑스본부(ASSITEJ France)
일시	2016년 7월 20일(수) - 7월 31일(일)
장소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 예술극장, 마로니에 공원 등

아시테지 한국본부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130주년을 기념해 아시테지 프랑스본부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교류 프로젝트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6년 1월 파리 떼아트르 드 라 빌(Théâtre de la Ville/파리시립극장)에서 한국의 우수 아동극 <달래이야기>, <나무와 아이> 두 편을 선보였다. 오는 7월에는 대학로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에 '프랑스주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프랑스 아동청소년극 세 편을 초청하고, 한국 극단과 프랑스 연출가의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아동청소년극 전문 평론가, 연출가 등이 심포지엄 등의 부대행사에 함께하여 각국의 아동청소년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랑스주간' 초청작

1. 바운스(Bounce)

- 단체- 아르코즘(Arcosm)

<Bounce>는 실패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무용극으로 현악연주에서 비트박스를 아우르는 음악이 함께한다. 2016년 유럽의 대표 아동청소년극 축제인 프랑스 모믹스 페스티벌과 독일 파눔티쿰 페스티벌 등에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활발한 투어활동을 펼치고 있다.

2. 모옹스트르(Mooooooooonstres)

- 단체- 콜렉티프 라벨 브뤼트(Collectif Label Brut)

어린이라면 혹은 어른이라도 모두가 한 번쯤 무서워했을 법한 괴물의 존재. 이 작품은 침대시트, 이불보, 베개, 전등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불 꺼진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생각해볼만한 괴물과 두려움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다. 2012년 4월 초연 이후 400회가 넘는 공연을 가졌으며, 세계적인 명성의 아비뇽 페스티벌과 샤를르빌 국제인형극축제를 비롯하여 캐나다,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에 초청되었다.

3. 비하인드 더 도어(Behind the Door)

- 단체- 라 수프(La SOUPE)

1부터 10까지 새겨진 문들이 있는 의문의 호텔. 주인마저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찾기 위해 하나씩 문을 열어 본다. <Behind the Door>는 초현실의 판타지를 대사 없이 인형, 이미지, 소리 등으로 표현한, 사랑스러움과 장난기 가득한 작품이다.

한국-프랑스 합작

한국 극단 아리와 프랑스 극단 콩파니 아(Compagnie à)의 합작 창작을 지원하여 축제 기간 중 초연을 가질 예정이다.

부대행사

한국-프랑스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아동청소년극 회교 관련 심포지엄, 프랑스 드로잉아티스트 전시 혹은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국-프랑스 거리예술을 통한 협력 및 교류사업

양국 주최기관	한국 -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프랑스 -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LA CITÉ, La cité des arts de la rue)
일시	2016년 9월 - 10월
장소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지난 2015년 4월 서울 광장동에 문을 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거리예술 베이스캠프이다.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던 구의 취수장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태어난 이 공간은 앞으로 거리예술과 서커스 공연의 산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리예술은 공공장소에서의 공연을 통해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예술분야로, 연극·무용·음악·서커스·마임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 또한 거리예술은 제작과 공연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 공공예술의 한 장르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 거리예술 페스티벌 공동개최

2016년 10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프랑스의 가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거리예술을 통해 교류한 과거를 되짚어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교류방법 및 접근방식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축제를 통해 교류 및 성장해 온 거리예술이 앞으로는 제작소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양국의 거리예술축제 및 제작소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본 행사는 2016년 양국에서 교차로 2차례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에서, 하반기에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된다. 각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을 물론, 양국의 대표 거리예술 작품들을 함께 공연하여 보다 풍성한 교류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2. 거리예술 작품 상호교류

한국과 프랑스의 새로운 거리예술 작품 및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는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창작단체 간의 공동창작 프로젝트를) 양국의 축제에서 교차로 발표함에 따라 양국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증대하고 향후 창작단체와 축제 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한국과 프랑스의 거리예술축제를 중심으로 발표될 것이며, 관련 업무(교류 및 배급 지원)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측 파트너(한국 거리예술 작품의 배급처)는 살롱거리예술축제, 오리악국제거리극축제 등 7-8월에 진행되는 프랑스 주요 거리예술 축제가 될 것이며, 한국 측 파트너(프랑스 거리예술 작품의 배급처)는 9-10월에 진행되는 한국 대표 거리예술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 고양호수예술축제 등이 될 것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초청 예정인 작품 대상을 우선순위로 진행된다.

마르세유 북부의 옛 산업단지 외곽에 자리 잡은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는 36,000㎡의 대단위 무대실험실로써 거리예술의 실험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서로 보완적인 6개의 단체가 공동 운영 중인 이곳은 구의 취수장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벤치마킹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의 한국 측 주관이자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운영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은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예술교육, 시민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지원기관이다.

로베르토 주코(Roberto Zucco)

양국 주최기관	한국 - 국립극단
일시	2016년 9월 23일(금) - 10월 16일(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은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프랑스 연출가 장 랑베르-빌트와 그와 2012년부터 호흡을 맞춰온 로랑조 말라게라 연출을 초청하여, 프랑스의 대표 극작가인 마리 콜테스의 문제작 <로베르토 주코>를 공연한다. 이를 통해 국립극단은 프랑스 희곡과 예술가를 국내에 알리며, 작품을 통해 억압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프랑스의 대표 극작가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의 작품은 이미 30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로베르토 주코>는 콜테스의 유작으로 실존한 이탈리아의 연쇄살인범 로베르토 수코(Roberto Succo)를

모델로 해서 쓰여졌다. 현대인의 불안과 고독, 방향을 섬세한 심리묘사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이번 공연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험 연출가로 극작, 연출, 연기, 무대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독특한 세계를 선보여 온 연출가 장 랑베르-빌트와 2012년부터 그와 호흡을 맞춰온 연출가 로랑조 말라게라가 공동 연출한다. 친어머니를 비롯해 무수한 사람을 죽인 살인마 로베르토 주코의 세상이 실험적이고 독특한 미장센으로 구현 될 예정이다.

장 랑베르-빌트(Jean Lambert-wild) - 프랑스 출신의 연극 제작자이자, 연출가이다. 극작가, 배우, 무대디자이너로도 활동하고 있다. 고전과 현대희곡을 오가며 현대적인 창작 작업을 하고, 타 장르의 창작자들과도 긴밀하게 협업해왔다. 현재 유니온극장(Théâtre de l'Union)의 예술감독이다.

로랑조 말라게라(Lorenzo Malaguerra) - 스위스의 몽테(Monthey)에 있는 크로세탄 극장(Crochetan Theatre)의 감독이다. 배우, 무대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약 20여 편의 연극을 연출한 바 있으며, 정기적으로 장 랑베르-빌트와 연극, 디지털 아트 사이의 경계에서 협업을 통해 공연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필립 드쿠플레 무용단 <콘택트(Contact)>

양국 주최기관	한국 - LG아트센터 / 프랑스 - 필립 드쿠플레 무용단(COMPAGNIE DCA/PHILIPPE DECOUFLE)
일시	2016년 11월 11일(금) - 13일(일) LG아트센터 / 2016년 11월 17일(목) 대구수성아트피아 / 2016년 11월 20일(일) 부산 영화의전당
장소	LG아트센터, 대구수성아트피아, 부산 영화의전당

2000년 개관 이래 세계적 명성의 수준 높은 공연들을 선보이며 국내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온 공연장 LG아트센터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필립 드쿠플레 무용단의 <Contact>를 한국 관객에게 선보인다.

<Contact>는 2014년 프랑스에서 초연된 필립 드쿠플레(Philippe Decoufle)의 최신작으로, 카툰, 서커스, 댄스, 마임, 연극, 영화, 뮤지컬을 혼합하여 만든 뮤지컬이자 비주얼 코미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 카바레에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뮤지컬로 만드는 과정을 영똥하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또한 무대 위에는 무용수, 라이브 뮤지션, 배우, 가수, 음악가 등 총 15명이 출연해 인간의 선과 악, 예술, 사랑 등의 테마를 시각적인 화려함과 위트 있는 음악으로 선보인다.

특히 이 작품은 드쿠플레가 존경하는 선배 안무가이자, LG아트센터 와도 인연이 깊은 예술가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대표작 <콘택트호프(Kontakthof)>에 경의를 표하는 작품이기도 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Contact>는 2014년 초연 이후 프랑스 전역의 19개 도시에서

공연되었으며, 2015년에는 영국, 벨기에, 독일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고 올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안무가 필립 드쿠플레는 고전적인 공연 요소와 멀티미디어를 결합한 복합 예술공연을 선보이며 프랑스 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그의 모든 작품에는 춤, 연극, 서커스, 마임, 영화, 그래픽, 패션, 만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녹아있으며, 이를 화려한 비주얼과 아크로바틱을 통해 그려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4년에도 드쿠플레는 그의 대표작을 모아 만든 작품 <파노라마>로 LG아트센터에 내한해 국내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오네스코 <코뿔소>

양국 주최기관	한국 - 국립극장 / 프랑스 - 떼아트르 드 라 빌(Théâtre de la Ville)
일시	하반기 중
장소	국립극장

떼아트르 드 라 빌(Théâtre de la ville)'의 예술감독이자 셰익스피어, 뷔히너, 피란델로, 이오네스코, 브레히트 작품 등의 연극 연출가인 엠마누엘 드마르시 모타(Emmanuel Demarcy-Mota)가 2004년 처음 리메이크한 외젠 이오네스코(Eugène Ionesco)의 <코뿔소(Rhinocéros)>가 재탄생하여 한국을 찾는다.

개인주의의 형태를 넘어 자신의 책임, 생각의 자유, 집단 역사에서 개인의 위치와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가들의 작품에 관심이 많은 엠마누엘은 20세기 극작가인 이오네스코(Ionesco), 브레히트(Brecht), 오르베쓰(Horváth)의 작품들 속에서 그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우리의 삶과 여러 유사함을 발견한다.

이오네스코는 인간의 위선뿐 아니라 순응적 태도와 무기력함을 변증법적 방법으로 잘 묘사하는 작가이다. 그가 표현하는 동유럽의 멜랑콜리는 개인과 세계에 대한 신랄한 시선을 담고있지만 과감한 창조적 반론, 창의성이 풍부한 판타지 그리고 자유를 나타내고 있어 절망적인 연극은 아니다. <코뿔소>는 우리의 분별 있는 세계, 이데올로기 감염의 어둡고 치열한 우화의 환상적인 상태를 그린다. 엠마누엘이든 그가 처음으로 <코뿔소>를 연출했을때보다 생각, 언어가 구체화되어 자리잡는 방법에 대해 이번 작업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 연극은 엠마누엘의 새로운 어법으로 인간의 부활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해학의 장례식으로 연출되어 잔혹하지만 한편의 시와 같은 무대가 될 것이다.





프랑스FRANCE
CORÉE 한국
2015 2016

시각예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에코 시스템 : 질 바비에(Echo system: Gilles Barbier)

양국 주최기관	한국 - 국립현대미술관 / 프랑스 - 프리쉬 라 벨 드 메(Friche la Belle de Mai)
일시	2016년 4월 13일(수) - 7월 31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965년 바누아투 공화국 출생인 질 바비에에는 특정 캐릭터를 차용하거나 특정 과학,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허구와 상상, 무의식의 세계를 회화, 드로잉, 조각, 설치 등의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합성수지를 사용해 자신의 모습을 조형물로 재현 및 변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육체와 시공간, 나아가 현대사회에 대한 자신의 주관과 감성을 나타내고 있다.

질 바비에의 30여년간의 창작활동 기간에서 예술적 사고의 확장 및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의 작업을 주제별로 나누어 작가의 광범위한 주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이다.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사용해 기존의 현실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새로운 차원의 공간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질 바비에의 독창성과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 마련하려고 한다.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MMCA 전시 토크: 작가와 큐레이터의 대화

일시: 2016년 4월 13일(수)

내용: 작가 및 큐레이터의 대화를 통해 전시 기획의도 및 작품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관객과의 질의응답 진행

[프로그램 2]

프로그램명: 전시연계 심포지엄: 한-불 미술교류의 전개와 확산

일시: 2016년 5월 혹은 6월(예정)

내용: 한, 불 미술교류의 역사 및 변모 과정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심포지엄

음식을 입다(TEXTIFOOD)

양국 주최기관	한국 -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DTC섬유박물관 / 프랑스 - 릴3000
일시	2016년 5월 27(금) - 7월 31(일)
장소	DTC섬유박물관

이번 전시 음식을 입다(TEXTIFOOD)는 직물을 의미하는 'textile'과 음식을 의미하는 'food'를 합성한 용어로 식품 산업과 섬유 산업의 접목으로 탄생한 바이오 섬유의 미래를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량 생산되는 식자재,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은 친환경 프로젝트이다.



전시의 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전시품이 선보이게 되는데 1) 농작물 및 식재료의 부산물을 활용한 섬유와 이를 이용한 패션 의류, 소품 2) 세계 각국의 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소재를 응용한 제품 3) 작품, 샘플,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체험자료이다.

Coralie Marabelle, Kristian Von Forselles 등 10여 개국의 30여 명의 작가와 LENZING 등 10여 개국 30여 개 기업, 연구소가 이번 전시에 참가한다.

전시에 사용된 재료 분류로는 먼저 천연섬유가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섬유소를 찾아내어 섬유/직물로 가공, 활용하는 사례로서 전통적 천연섬유(면, 마)와 식물의 줄기(연꽃), 잎(바나나, 사이잘삼), 열매(카카오, 케이폭), 조개(bysus) 등 활용한 섬유 등이 이들이다. 합성섬유는 단독으로 섬유를 제작할 수 없는 재료에 사람의 힘을 더해 가공, 활용하는 사례, 자연

소재에 화학 처리하여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식물 소재(유칼립투스, 대나무 등)를 소재로 한 셀룰로오스 섬유 계통과 갑각류, 우유, 와인, 맥주 등을 소재로 한 비셀룰로오스 섬유 등이 소재가 되어 만들어진다.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5 (ORLAN TechnoBody Retrospective)

양국 주최기관	한국 - 성곡미술관 / 프랑스 - 오를랑 스튜디오(ORLAN STUDIO)
일시	2016년 6월 17일(금) - 10월 2일(일)
장소	성곡미술관

오를랑 테크노바디전은 자신의 성형수술 현장을 위성 중계하며 기상천외한 '성형수술 퍼포먼스'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오를랑 작가의 회고전이다. 비디오,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3D 아바타의 증강현실, 게임 등 테크놀로지로 표현된 신작 영상 11점을 비롯해 1966년 작품을 필두로 현재까지의 영상, 사진, 입체작품들로 구성된다. 원숙의 경지에 도달한 오를랑 작가는 시대와 사회가 가하는 억압된 시스템 속에서 작가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조작함으로써 자유와 창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시도한다.

“처음부터 내 작품은 신체에 가해지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압력들에 대한 질문이었다.” “신체를 작업하기, 그리고 내 몸 위에서 작업하기, 그것은 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함께 나열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를랑 작가는 예술을 통해서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편협함, 인간만을 위한 자연 착취, 타인에 대한 맹목적 투쟁과 경쟁적 이기심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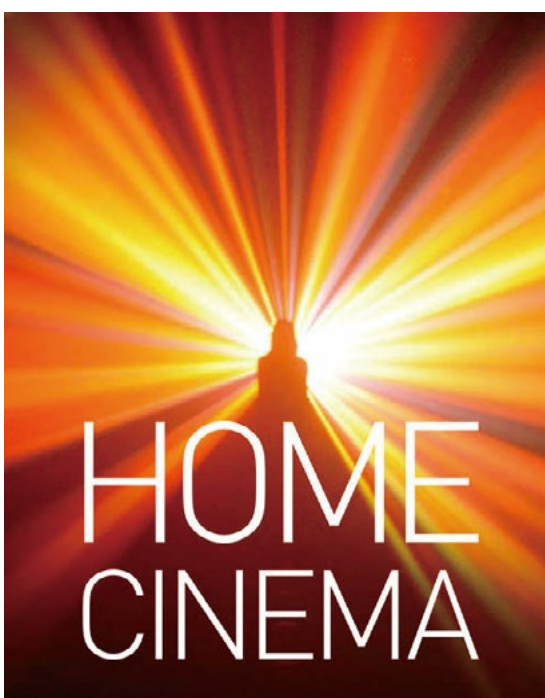
오를랑 ORLAN

오를랑 작가는 1947년 생으로 현재 프랑스를 대표하는 생존 작가 중 한 명이다. 1947년 생테티엔느 출생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생존 작가 중 한 명이다. 파리에 거주하며, 파리,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의 세르지-퐁투아즈 Cergy Pontoise 국립미술학교 교수를 역임하였고, 2006년 게티 연구소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혀나아 갔으며, 현재는 전 세계의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개최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홈 시네마 (Home Cinema)

양국 주최기관	한국 - 대구시립미술관 / 프랑스 - 발드마른 크레테유 예술의 집(Maison des Arts de Créteil et du Val-de-Marne)
일시	2016년 6월 8일(수) - 10월 16일(일)
장소	대구미술관 어미홀 및 프로젝트룸



2011년 건립된 대구미술관은 매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미술의 경향이나 작가들을 주제로 한 해외교류전을 꾸준히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의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세계 미술계의 동향을 소개하고, 더불어 동시대 예술의 미술사적 의의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대구미술관은 프랑스 내 여러 미술관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전시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중 <Home Cinema>는 프랑스 크레테유 예술의 집(Maison des Arts de Créteil et du Val-de-Marne)과 함께 마련한 프랑스 현대미술전이다. 크레테유 예술의 집은 발드마른 주의 주도인 크레테유 시에 위치한 복합 문화예술센터로, 연극, 음악, 무용, 전시, 설치미술 등 다양한 예술작업을 소개, 지원하고 있는 공간이다.

대구미술관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Home Cinema>전은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뉴 미디어 현대 작가들을 소개하는 전시다. 1960년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뉴 미디어 영역을 현대미술과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전시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에밀리 브루 & 막심 마리옹(Emilie Brout & Maxime Marion)외 15여 명 작가들의 영상 및 뉴

미디어 설치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전시 제목인 <Home Cinema>는 오늘날 영화제작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은밀한 영역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객'의 정의마저 변화시켜 관객을 잠재적인 영화제작자나 배급자로 변모시켰다.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휴대폰을 스튜디오 삼아 매일 같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사회적 역할과 시스템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 <Home Cinema>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경향을 뉴 미디어 설치작품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전시이다.

그간 프랑스와의 미술 교류는 자주 있었지만, 이렇듯 확장된 개념의 프랑스 현대미술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의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은 이번에 마련한 일련의 교류전들을 통해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프랑스 문화관련 행사들을 지역에서도 개최하며 지역 예술발전에 힘을 싣고자 한다. 또, 그동안 한국에서 폭넓게 다뤄지지 않았던 프랑스 현대미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카르티에 브레송전(1932-1946)

양국 주최기관	한국 - 한미사진미술관 / 프랑스 - Fondation Henri Cartier-Bresson
일시	2016년 9월 3일(토) - 12월 10일(토)
장소	한미사진미술관 19층 제 1,2전시실

한미사진미술관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전설적인 프랑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재단과 공동주관으로 기획전 <Henri Cartier-Bresson's Scrapbook>을 한국에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정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미술관의 특별전 중 하나이다.

1940년, 브레송은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1943년 두 번의 시도 끝에 탈출에 성공한다. 다시 사진기를 잡은 후 Editions Braun이 의뢰한 유명한 초상연작 시리즈를 비롯해 1945년 파리의 해방을 기록했다. 그러한 와중에 뉴욕현대미술관(MoMA)는 2차 세계대전 중 브레송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의 회고전을 준비하는데, 그의 생존 소식을 듣게 된 당시 MoMA의 큐레이터 버몬트 뉴홀은 이후 브레송과 여러 차례 편지를 오가며 전시를 준비한다. 브레송은 MoMA 전시를 위해 251장의 사진을 선별하여 직접 작은 사이즈로 인화하였고, 1946년 4월, 사진들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뉴욕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이 전시의 제목인 “스크랩북(the scrap book)”은 당시 브레송이 MoMA 전시를 위해 직접 준비했던 251장의 작품이 담긴 포트폴리오다. 이 251장의 사진들 중 163점이 미술관 큐레이터와의 상의 끝에 최종 전시작품으로 선별되었고, 전시는 1947년 2월 4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Henri Cartier-Bresson's Scrapbook> 사진전에서는 그가 1947년에 직접 인화한 몇 안 되는 빈티지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브레송이 동료들과 함께 창립한 전설적인 보도사진 클럽 매그넘 포토스가 설립되기 이전이고, 그가 본격적으로 보도사진계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에 초기 사진들이기에 더욱 희귀하고 값지다. 브레송이 젊은 시절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영향 가운데서 어떠한 사진작업들을 진전시켜왔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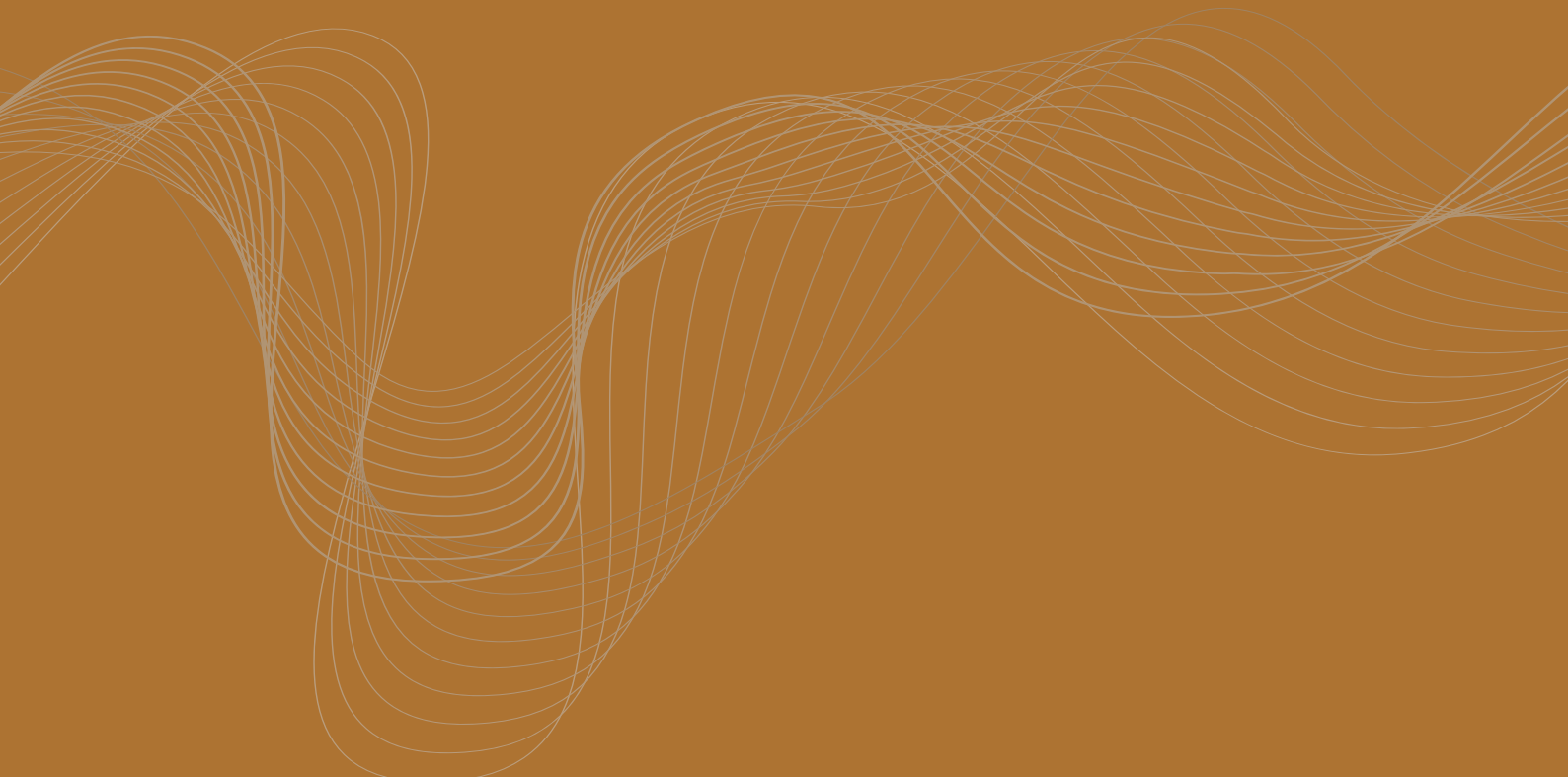
브레송 생전에 그가 작업 아카이브 보존을 위해 가족들과 설립한 브레송 재단에서 직접 가져온 사진들은 브레송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아카이브이다. 전시개막일에 맞춰 브레송 재단의 소장품 담당자 Aude Raimbault가 방한하여 기자간담회, 오픈렉처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랑스 FRANCE
CORÉE 한국
2015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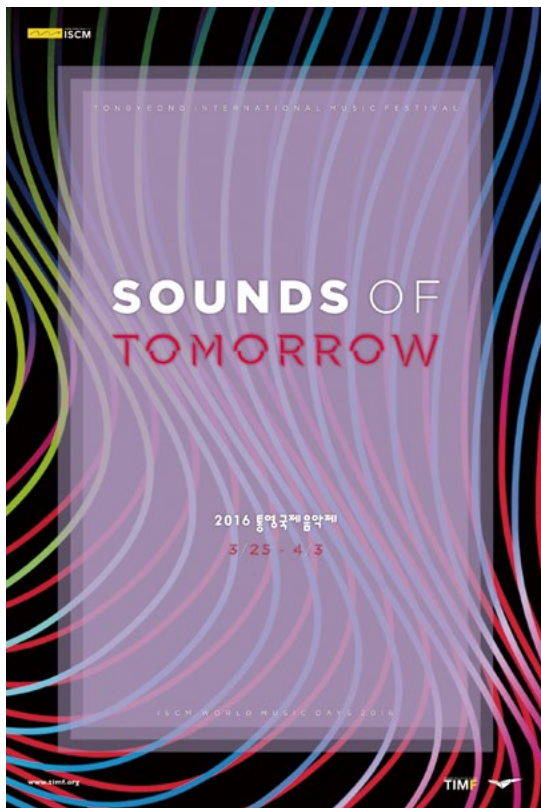
음악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 통영국제음악당 '프랑스 포커스'

양국 주최기관	한국 - 통영국제음악재단
일시	2016년 3월 25일(금) - 2016년 10월 28일(금)
장소	통영국제음악당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는 프랑스 문화예술의 정수를 선보일 다양한 공연을 진행한다. 로버트 카홍의 설치작품으로 작곡가이자 지휘자 피에르 불레즈가 지휘하는 “시간의 주인”을 추모하고, 지휘자 올리비에 슈니벨리가 이끄는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 센터의 샤르팡티에 오라토리오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이후 6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French Week 기간에는 반더러 트리오를 시작으로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에리크 르 사주, 소프라노 황수미가 프랑스 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는 그람의 “스레드”와 마티아스 핀처가 지휘하는 앙상블 앵테르콩탕포렐의 공연이 통영을 물들일 것이다.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진행되는 2016통영국제음악제 기간 동안 음악제를 찾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전시가 진행된다. 피에르 불레즈가 직접 지휘하는 Mémoriale 영상이 로버트 카홍의 설치 작품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세기의 황금귀로 유명했던 거장 피에르 불레즈가 지난 1월 5일 독일 바덴바덴에 있는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로버트 카홍의 설치작품은 피에르 불레즈의 생전 모습을 음악, 영상과 함께 보여줄 것이다.

통영국제음악제와 세계현대음악제를 찾는 연주자, 관객, 그리고 전세계 수많은 작곡가들이 이제는 떠나간 전설, 피에르 불레즈를 추모할 수 있는 자리이다.

2016통영국제음악당 & 2016세계현대음악제 - 2e2m 앙상블

양국 주최기관	한국 - TIMF앙상블 / 프랑스 - Ensemble 2e2m
일시	2016년 3월31일(목) - 4월1일(금)
장소	통영국제음악당



1972년 창단된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음악 단체 2e2m 앙상블이 통영국제음악제를 찾는다. 다원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며 프랑스 모더니즘의 진수를 보여주는 단체이다. 40년 넘게 고전부터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양식을 아우르고 융합예술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2e2m 앙상블은 현재까지 600곡 이상을 위촉, 세계 초연했으며, 윤이상 선생의 대표작 Octet을 세계 초연하기도 했다. 2e2m 앙상블은 이번 '2016통영국제음악제 & 2016세계현대음악제' 기간 동안 총 2차례 연주를 가진다. 3월 3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공연에서는 지휘자 피에르 루리에, 소프라노 김유미가 함께하며 파스칼 콩테가 아코디언을 연주한다. 근현대 클래식 음악 작곡가의 대표 주자인 드뷔시와 라벨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우아하고 감성적인 왈츠에 이어 어렵지 않은 현대음악, 카바나의 아코디언 협주곡 '카를 코프'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진귀한 기회 또한 마련된다. 한국 작곡가 김동명의 'Flower blossom with waving'의 한국 초연도 놓칠 수 없는 무대이다.

이어 두 번째 공연은 '2016세계현대음악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공연으로 오는 4월 1일 밤 10시,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진행된다. 카르멘 크르네치의 'Die Niemandrose - Drei Celan - Lieder', 전예은의 'A Game of Fives', 박정은의 'Alter Ego', 시마쓰 다케히토의 'Requiem for Nature', 그리고 토마스 스크베레스의 'Sakubel Osil', 엄선된 이 5곡이 모두 세계 초연 혹은 아시아 초연될 예정이다.

베르사이유 바로크 음악센터 Centre de musique baroque de Versailles(CMBV) 내한공연

양국 주최기관	한국 - 전북대학교, 전주시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프랑스 - Centre de music baroque de Versailles
일시	2016년 5월 12일(목)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국내 클래식 공연장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17~18세기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전주시청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대학교 인문영상연구소는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부흥을 위해 설립된 베르사이유 바로크 음악센터(Centre of baroque music of Versailles(CMBV))의 레 빠쥬 에 레 샹트르(Les pages et les chantres)를 초청하여 음악을 사랑하는 전주 시민들과 전문 음악인을 꿈꾸는 예비 음악인들에게 이 콘서트를 통해 프랑스 고전음악의 전통과 특징을 소개하는 최초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절대왕정 시기, 왕과 궁전을 중심으로 발전한 프랑스 바로크 음악은 그 자체로 장엄한 아름다움을 지녔을 뿐 아니라, 당대의 연극과 오페라, 무용 등 다른 예술 장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의 핵심무대라 할 수 있는 베르사이유 궁전 합창단으로 시작한 CMBV는 유구한 세월을 거치며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역사를 담아왔다.

이번 <CMBV 내한공연>은 2016년 5월 둘째 주에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며, 올리비에 슈니벨리(Olivier Schneebeli)의 지휘 아래 연주자와 솔리스트, 합창단 33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Histoires sacrees>, <Judith>, <Le Massacre des Innocents> 등 17세기 프랑스 작곡가인 샤르팡티에의 작품을 위주로 한 레퍼토리를 통해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공연뿐만 아니라 학생 및 음악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성악과 연주 마스터클래스를 제공해 CMBV의 음악세계를 깊이 있게 알리고, 향후 한국의 젊은 음악인들이 CMBV의 성악가, 연주자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음악교육기관을 드레스리허설에 초청해 앞으로 CMBV와 한국의 음악학교, 음악원이 장기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CMBV는 본래 공연 외에도 연구, 출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이번 내한공연이 단순히 일회적인 초청공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한국의 젊은 음악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양국 주최기관	사단법인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집행위원회
일시	2016년 5월 17일(화) - 29일(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외



2006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Music)는 매년 5월, 약 2주간에 걸쳐 개최되는 음악축제이다. 서울의 주요 공연장뿐만 아니라 고궁과 공원, 박물관과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음악회를 진행하며 서울의 봄을 실내악 선율로 가득 채워왔다. 또한 이들은 서울 시민들을 위한 무료공연, 청소년 음악학도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에 있다.

통상 실내악이라 하면, 기악을 중심으로 하여 5명에서 10명 안팎으로 편성되어 실내 혹은 작은 규모의 연주장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의미한다. 대규모 오케스트라 편성이 아닌 만큼 연주자들의 음악적, 인간적 교류가

매우 중시되는 장르이다. 지난 10년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축제에 참가한 국내외 연주자들의 유대 또한 깊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매년 “동서양의 만남”, “민속음악 하모니” 등 새로운 주제를 기반으로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칫 낯설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실내악 장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음악애호가든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연주하는 음악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매년 유명 작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그들의 작품을 포스터 및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 역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전통이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6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프랑스 작곡가의 곡을 위주로 프랑스 클래식 음악의 향연을 펼치고자 한다. “France in Korea”를 주제로 하여 프랑스 작곡가들의 아름다운 실내악 작품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연주한다. 한편, 공식 개막에 앞서 개최되는 SSF 프링지 페스티벌은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다. 올해도 국내의 음악학도 및 아마추어 시민연주단이 국립중앙박물관, 명동성당, 시립어린이도서관 등 도심 곳곳을 찾아가 무료로 실내악을 연주하면서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불 수교 클래식 페스티벌

양국 주최기관	한국 - 페스티벌 오원 / 프랑스 - Les musicales 외 6곳
일시	2016년 8월 25일(목) - 9월 5일(월)
장소	부산 영화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외 3곳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의 페스티벌 오원과 프랑스 유수의 축제들이 공동으로 <한-불 수교 클래식 페스티벌(Coree-France Classic Festival)>을 개최한다. 첼리스트 양성원의 지휘 하에 프랑스와 한국 양국의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연주자들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이중 한국 공연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정통 연주자들과 악단의 연주를 선보임으로써 국내 클래식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한국 공연에는 프랑스의 오랜 역사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르 피가로(Le Figaro)>지의 동행취재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 콘서트장 및 공연장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불 수교 클래식 페스티벌(Coree-France Classic Festival)> 한국공연에서는 라벨(Ravel)과 슈베르트(Schubert)의 피아노 트리오(Piano Trio)와 함께 엔리코 모리코네(E. Moricone)의 <가브리엘의 오보에(Gabriel Oboe)>, 바칼로프(L. Bacalov)의 <일 포스티노(Il postino)>, 니노 로타(N. Rota)의 <길 모음곡(La Strada Suite, arr. Ohad Ben Ari)> 등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음악들을 선곡, 전국의 관객들이 음악회를 조금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불 수교 클래식 페스티벌> 한국 공연에는 첼리스트 양성원을 비롯해 모딜리아노 콰르텟과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슈트로세(Emmanuel Strosser),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Olivier Charlier), 메조-소프라노 마리 폴 밀론(Marie Paule Milone), 피아니스트 드니 파스칼(Denis Pascal), 첼리스트 마크 코피(Marc Coppey), 비올리스트 김상진,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피아니스트 이효주 등 한국과 프랑스, 거장과 신진 등 나라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인들이 함께 한다. 한국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 서울에서의 공연과 함께 영화의 도시 부산과 예술의 도시 여수에서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의 한국 측 주관을 맡은 페스티벌 오원은 첼리스트 양성원이 음악감독을 맡아,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협력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시작한 오감만족 콘셉트의 <Festival Owon>은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례시연, 도예, 사진전 등 한국의 다양한 예술을 전하고 있다.

롯데 콘서트홀 개관페스티벌 (LOTTE Concert Hall Opening Festival)

양국 주최기관	한국 - 롯데 콘서트홀
일시	2016년 9월 20일(화), 2016년 11월 22일(화), 2016년 10월 26일(수), 2016년 10월 15일(토)
장소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

고음악 르네상스의 주역, 23년 만의 내한

고음악의 20세기 르네상스를 일으킨 주역인 윌리엄 크리스티가 그가 창단해 고음악의 부흥을 함께 이끌었던 레자르 플로리상과 23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윌리엄 크리스티의 진두지휘로 세계 주요 도시를 누비며 독보적인 명성을 쌓아 온 레자르 플로리상의 이번 내한은 고음악 애호가들에게 실로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순간이다. 기악과 보컬 앙상블로 이루어진 레자르 플로리상은 이번 내한 공연에서 특별히 헨델, 비발디, 하이든, 모차르트뿐 아니라 스트라델라, 치마로자 등 평소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주옥같은 작곡가의 작품들을 생생하게 선사할 예정이다.



우리시대 음악의 이정표 그들의 역사적 첫 내한

20세기 음악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곡가 중 한 명이자 현대음악을 논할 때 빠트릴 수 없는 거장 피에르 볼레즈가 창단한 프랑스 현대음악 앙상블 앙테르콩탱포랭이 역사적인 한국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 앙테르콩탱포랭은 리게티, 바레즈에서부터 현재 음악감독인 마티아스 핀처와 진은숙까지 이르는 다양한 작곡가의 음악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초에 타계한 현대음악의 전설 볼레즈가 앙테르콩탱포랭을 위해 작곡한 “메모리알레(Mémoriale)”의 초연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수많은 연주자들의 찬사를 받는 앙테르콩탱포랭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의 감각적인 미장센

프랑스 악상프로방스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빈 페스티벌 등 유럽의 가장 명망 있는 페스티벌 및 극장에서 2014년 초연되며 화제를 모았던 <겨울나그네>가 한국에서 첫선을 보인다. 이 작품은 독일 가곡의 거장 마티아스 괴르네와 드로잉, 영화, 연극, 오페라 작품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남아프리카 아티스트 윌리엄 켄트리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작품의 예술성과 화제성 모두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 윌리엄 켄트리지의 영상은 사랑을 잃은 청년의 마음을 그린 빌헬름 뮐러의 시와 이를 노래하는 마티아스 괴르네의 목소리를 더욱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내며 관객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겨울나그네>를 선사할 것이다.

장 기유 파이프로오간 리사이틀
2016년 9월 20일(화) 오후 8시

윌리엄 크리스티 & 레자르 플로리상
2016년 10월 15일(토) 오후 2시

앙상블 앙테르콩탱포랭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8시

마티아스 괴르네 & 윌리엄 켄트리지의 <겨울나그네>
2016년 11월 22일(화) 오후 8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프랑스 포커스 프로그램 <포미에 인 자라섬 재즈>

양국 주최기관	한국 -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 프랑스 - 재즈 수 레 포미에(Jazz Sous Les Pommiers)
일시	2016년 10월 1일(토) - 3일(월)
장소	경기도 가평 자라섬

2004년 시작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한국의 대표적인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즈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다. 축제 기간에는 자라섬 전체가 다양한 공연장으로 조성되며,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갈대밭이 어우러진 곳곳에서 국내외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재즈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의 페스티벌이다.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매년 특정 국가를 지정해 집중 조명하는 '포커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재즈 강국의 다양한 음악과 대표적인 아티스트를 국내에 소개해왔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재즈 페스티벌인 재즈 수 레 포미에(Jazz Sous Les Pommiers)와 공동으로 프랑스 포커스 프로그램인 <포미에 인 자라섬 재즈(Pommiers in Jarasum Jazz)>를 개최한다. 이는 먼저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에 프랑스의 재즈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또 프랑스에 한국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양국 간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다.

먼저 2016년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기간 동안 프랑스의 대표적인 재즈 아티스트 약 4팀이 한국 자라섬에서 공연한다. 이는 자라섬프로젝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프랑스 포커스'로 중점 소개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행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재즈페스티벌에서 유럽 재즈의 강국인 프랑스 음악을 집중 소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매년 한 팀 이상의 프랑스 재즈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등 프랑스 재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여기서 소개된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번 프랑스 포커스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초청공연을 통해 프랑스 재즈를 널리 알리고, 워크숍과 포럼 등 부대행사를 통해 일반 관객들이 프랑스 재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프랑스 측 파트너인 재즈 수 레 포미에는 '사과나무 아래서 재즈'란 뜻을 지닌 34년 전통의 프랑스 대표 재즈축제다. 매년 부활절 40일 뒤인 예수승천대축일 전후 노르망디 지방의 쿠탕스에서 일주일 동안 개최된다. 매년 세계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참가하며, 마을의 성당, 광장,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재즈 무대가 펼쳐진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 재즈 수 레 포미에 기간에는 이곳에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아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니엘 하딩 & 파리 오케스트라 (Daniel Harding & Orchestre de Paris)

양국 주최기관	한국 - 빈체로 / 프랑스 - 파리 오케스트라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 대구 콘서트하우스, 2016년 11월 16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장소	대구 콘서트하우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현악단 중 하나인 파리 오케스트라가 한국을 찾는다. 특히 이번 내한공연은 새로 임명된 예술감독 다니엘 하딩(Daniel Harding)이 함께할 예정으로 더욱 큰 기대를 모은다. 젊지만 탄탄한 경력으로 주목받는 다니엘 하딩의 지휘 아래, 새롭게 재편된 파리 오케스트라가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 위주로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고자 한다. 또한, 이번 파리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Joshua Bell)이 협연에 참여해 국내외 클래식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1월 15일과 1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르는 이번 파리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은 베를리오즈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를 프로그램으로 확정되었으며,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의 중에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베를리오즈와 드뷔시를 필두로, 섬세하고 색채감 넘치는 프랑스 음악의 진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1967년 프랑스 음악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된 파리 오케스트라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게오르그 솔티(Georg Solti), 다니엘 바렌보임(Daniel Barenboim)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손을 거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악단으로 자리 잡았다. 2016년 파리 오케스트라의 8대 수석지휘자가 된 다니엘 하딩은 영국 출신의 지휘자로, 베를린 필 최연소 지휘, BBC 프롬스 최연소 데뷔 등의 기록을 세우며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지휘자로 자리매김했다. 오페라와 교향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에 두루 능한 하딩은 섬세한 해석과 함께 좌중을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이름이 높은 지휘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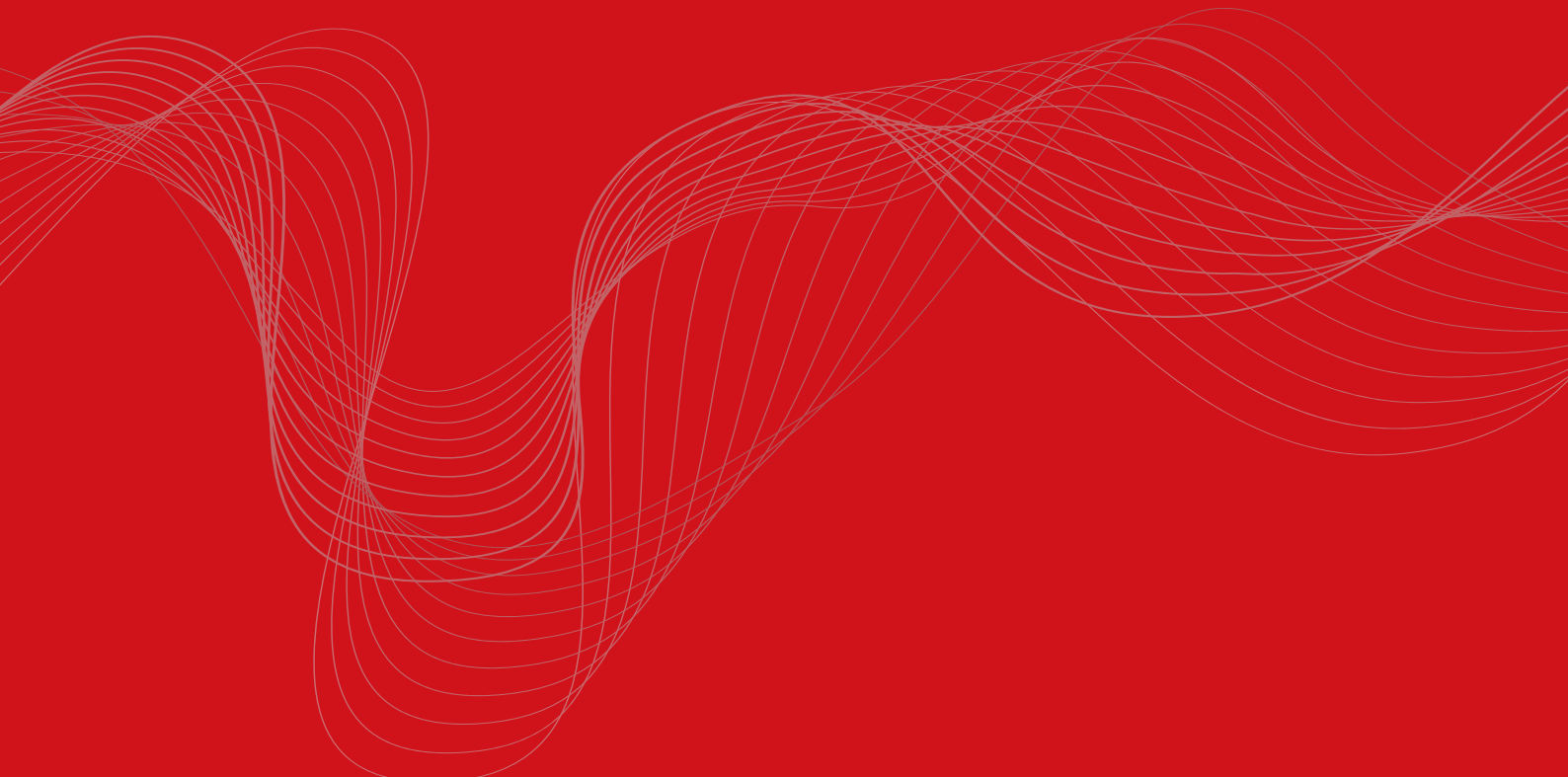
이번에 협연에 참가하는 조슈아 벨은 매년 200회 이상의 투어를 소화하고 있는 클래식 계의 슈퍼스타다. 영화음악, 뮤지컬, 재즈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전천후 연주자로 알려진 그는 이미 4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했으며 그라모폰, 에코 클래식, 그래미상 등 다수의 음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랑스 FRANCE
CORÉE 한국
2015 2016

영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랑스 여성영화 120년 특별전: 알리스 기에서 셀린 시아마까지”

양국 주최기관	한국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프랑스 - 크레테이유 국제여성영화제(Festival International de Films de Femmes de Créteil)
일시	2016년 6월 2일(목) - 8일(수)
장소	메가박스 신촌 및 신촌 일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영화제인 프랑스 크레테이유 여성영화제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여성영화제인 한국의 서울 국제여성영화제가 함께 만나 ‘여성영화’의 가치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여성 영화인들과 영화에 관심이 많은 여성은 세계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칸, 베를린, 베니스 등 전 세계적인 국제영화제에서 여성감독의 영화는 약 15-20%에 지나지 않고, 세계적으로 여성감독의 영화가 극장에 개봉하는 비율은 채 10%가 되지 않는다. 여성영화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영화인들과 여성영화의 존재와 가치를 더욱 단단히 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두 여성영화제의 만남은 유럽과 아시아라는 지역을 넘어 영상 이미지 향유의 성 평등권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세계 최초 여성 영화감독 알리스 기 블라쉴(Alice Guy-Blache)의 무성영화를 비롯한 고전 프랑스 여성영화부터 동시대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감독의 영화까지, 프랑스 여성영화 120년을 일별할 수 있는 작품이 약 20편 상영 예정 (장편 10편, 단편 10편 예상)이다. 특히, 알리스 기의 무성영화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 보다 다채로운 영화감상 체험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프랑스 여성영화 120년 특별전>의 관객과의 대화(GV)는 ‘Director’s View (감독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특화, 감독과 관객이 영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며 <프랑스 영화 120년, 여성의 역사 120년>의 제목으로 국제 컨퍼런스가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리셉션 파티로 <프렌치 나잇 포 위민 French Night for Women>가 마련되어 한국에 방한 프랑스 여성감독을 축하하고, 이들 영화의 우수성을 알릴 뿐 아니라 프랑스 문화원을 비롯하여 전 세계 대사관 및 문화원 인사들을 동시에 초청, 한국과 프랑스의 오래된 우정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랑스영화 특별전 '고몽 : 영화와 함께한 120년'

양국 주최기관	한국 -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 프랑스 - GAUMONT S.A
일시	2016년 7월 21일(목) - 7월 31일(일)
장소	부천시 일대 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부천시청상영관 등) 및 일대 행사장

1997년 첫 발을 내딛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는 그동안 만화와 게임을 넘어서는 기발한 상상력과 새로운 감성을 담은 영화들을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장르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영화들로 국내외 영화 마니아층을 생성했고, 유럽판타스틱영화제연맹(EFFFF),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한 세계 판타스틱 영화제들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아시아 장르영화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이와 함께 2008년에는 장르영화 전문 마켓인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를 런칭해, 장르영화를 중심으로 한 역량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며 아시아 영화시장을 이끌고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영화의 탄생과 함께 시작한 위대한 프랑스 영화사 고몽(Gaumont)의 대표적인 장르영화를 상영함으로써 프랑스 상업영화를 재조명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영화교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화제 기간 동안 고몽사의 영화 중 영화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룩 베송(Luc Besson) 감독의 <그랑 블루(Le Grand Bleu)>, 앙드레 윈벨(André Hunebelle) 감독의 <판토마스(Fantômas)> 등 7-8편의 고몽 영화를 상영하고, 양국의 영화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프렌치 나이트 인 비판(French Night in BiFan)' 파티도 개최할 예정이다.

1895년 레옹 고몽(Léon Gaumont)이 설립한 고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화사이다. 설립 첫 해에 루미에르 형제(Les frères Lumière)가 제작한 세계 최초의 영화 <열차 도착> <공장 문을 나서는 노동자>를 상영해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번 부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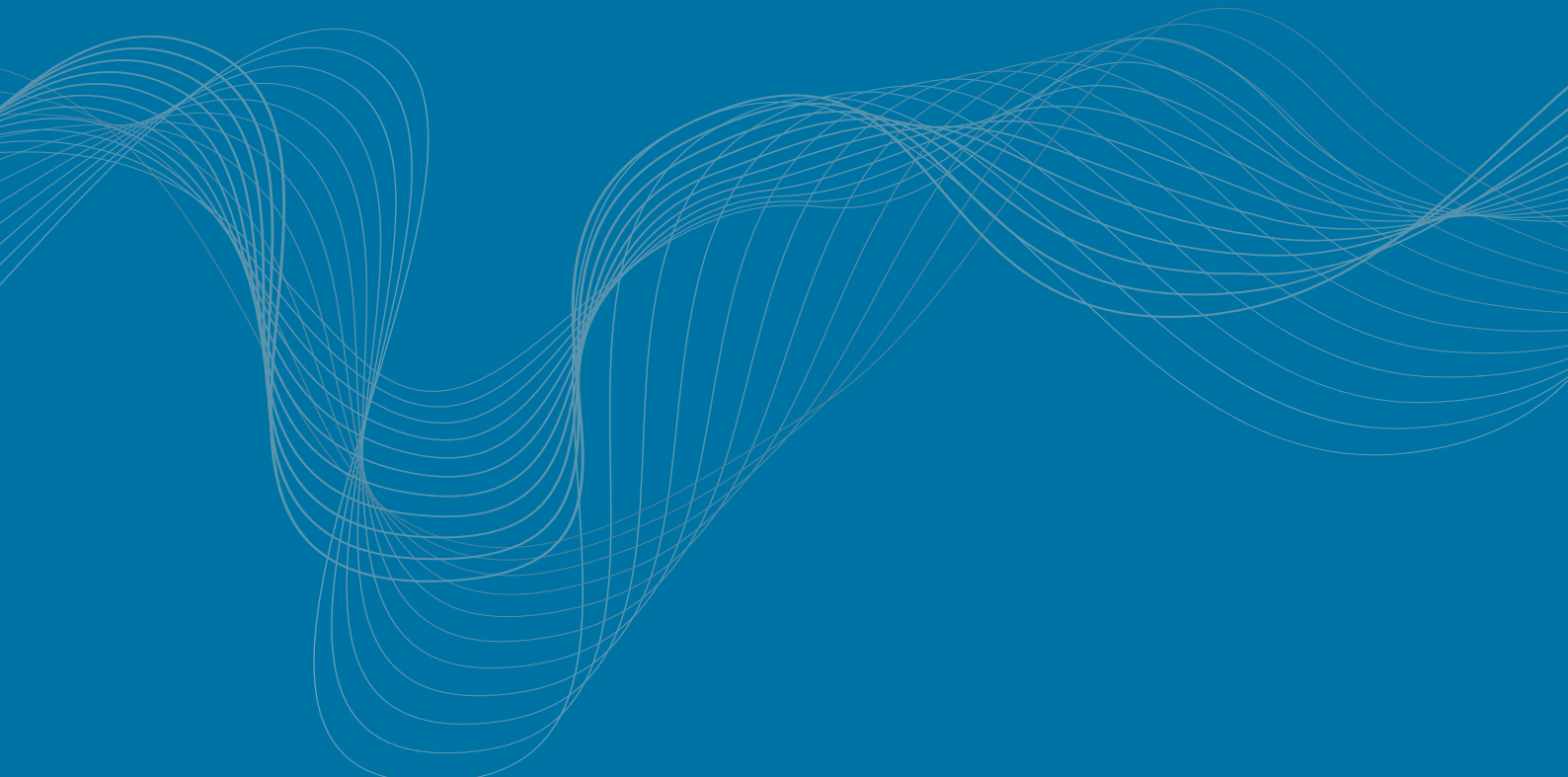
제판타스틱영화제의 <고몽 특별전>은 그동안 예술영화 분야에 치중되었던 프랑스 영화의 걸작 장르영화를 소개함으로써 프랑스 영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장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FRANCE
CORÉE 한국
2015 2016

교육 / 학술 / 과학 / 경제 / 미식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자매결연 학교 방문

양국 주최기관	한국 교육부 / 프랑스 교육부
일시 / 장소	2016년 4월 - 5월 / 서울 관광 고등학교, 서울 덕성 여자 중학교, 서울 여의도 여자 중학교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프랑스 각급 학교 간 자매결연을 진행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5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3개 학교씩 총 6개의 파리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서울시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다. 2015년 상반기에 자매결연 한 학교는 프랑스의 클로드 모네 고등학교(Claude Monet High School), 기욤 티렐 고등학교(Guillaume-Tiret High School), 구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Gustave Flaubert Middle School) 세 학교와 한국의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관광고등학교, 덕성여자중학교가 있다. 2015년 하반기에는 빅토르 뒤리 고등학교(Victor-Duruy High School)와 튀르크틸 디자인 고등학교(Turquetil Design High School), 장송 드 사이 고등학교(Janson de Saily High School)와 한국의 서울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가 자매결연하기로 했다. 또한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프랑스 자매 학교들의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서울관광고등학교-기욤티렐 고등학교(4.26~5.6), 덕성여자중학교-구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5.2~5.9), 여의도여자고등학교-장송 드 사이 고등학교(5.2~5.8)의 학생들이 교류 할 것이다.

문학 산책로 SENTIER DE LECTURE

양국 주최기관	한국 -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 프랑스 - 경남 거제 옥포 프랑스 교육관(Centre Scholaire Français)
일시 / 장소	2015년 9월 - 2016년 6월 / 거제 옥포-국사봉 등산로 일대

옥포 프랑스 교육관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문학 산책로'는 거제 주민들이 자주 산책하는 국사봉 등산로를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프랑스 어린이들이 직접 동화를 창작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창작동화는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로 제작되어 국사봉 등산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교차된 시선

양국 주최기관	한국 - 동의대학교 영화과 / 프랑스 - 파리 에스트-마른-라-발레 대학교 웹문화기술대학원(Université Paris-Est Marne-la-Vallée)
일시 / 장소	2016년 4월 - 5월 / 동의대학교, 부산문화컨텐츠컴플렉스

동의대학교 영화학과와 파리-에스트-마른-라-발레 대학교 웹문화기술대학원은 2013년 6월 MOU를 체결한 이후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Documentaire Interactif)'를 주제로 공동제작, 학생교류, 학술연구교류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ICT 분야의 가장 진화된 형태의 인터랙티브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이자 플랫폼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미개척 분야인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와 트랜스미디어 분야의 선구적 국가인 프랑스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영화·영상과 ICT의 새로운 융합 분야에 대한 학술교류, 기술협력, 공동제작, 학생교류는 물론, 양국 연구자,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양국 학생들의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인 만큼 본 프로젝트를 통한 양국의 교류협력은 더욱 의미가 크다.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파리-에스트-마른-라-발레 대학교 웹 문화기술을 이수하는 학생과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회를 통해 양국 간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대학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맛의 축제 FESTIVAL DES SAVEURS

양국 주최기관	한국 - 서울, 대구, 충북 교육청 / 프랑스 - 파리, 루앙, 크레테이 교육청
일시 / 장소	2016년 5월 4일(수) / 서울 그랜드 힐튼 컨벤션 센터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한-불 고교 간 미식행사>는 MOU가 체결된 양국의 교육청이 연합하여 음식문화 교류 행사 실시함으로써 상호 문화 이해 증진 및 국제교류 활성화하고자 한다.

MOU를 체결한 교육청은 서울-파리교육청(2015.4월), 대구-루앙교육청(2015.10월), 충북-크레테이 교육청(2016 예정)이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서울, 대구, 충북 교육청 산하 중고교를 프랑스 학생들이 방문하여 시식회,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5월 4일에는 한-불 조리 전공 학생들이 참가하는 요리 경연 대회를 진행한다.

크레아티브 프랑스 Cycle de conférences « Créative France »



양국 주최기관	한국 - 대산문화재단 / 주한 프랑스 대사관
일시 / 장소	2016년 3월 - 12월 / 교보빌딩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2016년 3월에서 12월간 대산 문화 재단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총 여덟 번의 강연 시리즈를 진행한다. «크레아티브 프랑스» 로 명명된 동 강연 시리즈는 프랑스의 창의성을 한국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분야(건축, 경제, 문학, 음식, 과학, 교육, 디지털 기술, 패션 및 최신의 의제)의 저명 인사들을 선정하여 강연에 초청할 예정이다.

개막 강연은 건축 분야를 주제로 채택하였으며 강연자는 1989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 2004년 이화여자대학교 및 2014년 알비 대극장을 건축한 도미니크 페로 건축가이다. 현재 개막 강연을 시작으로 문학(2016년 5월말, 장 마리 르클레지오), 신기술(2016년 6월 14일, 조셉 시파 키스), 의학(2016년 11월 15일, 프랑수아즈 바레 시누) 분야에서 세 개의 강연이 계획되어 있다.

키메오 프로젝트 2016 KIMEO Project 2016

양국 주최기관	한국 - 국립과천과학관 / 프랑스 - 유니베르시아스(Universcience)
일시 / 장소	2016년 4월 16일(토) - 17일(일) 프랑스 시테 데 시앙스(Cité des sciences) / 2016년 4월 30일(토)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관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두 과학관이 각각 운영하는 Fab lab의 이용자와 방문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로봇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서로 다른 문화 환경에서 Fab lab 이용자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더불어 로봇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과 프랑스 간 연결을 주제로 하는 감성 로봇을 제작할 예정이며, 2월까지 디자인과 전자전기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3월까지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을 진행할 것이다. 4월 16일과 17일 양일 간 프랑스 시테 데 시앙스(Cité des sciences)에서, 그리고 4월 30일 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 방문객들에게 공식행사를 통해 양국 간의 과학협력교류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물과 우주 (Water in Space and Planetarium Show)

양국 주최기관	한국 - 항공우주연구원 / 프랑스 - Cité de l'espace et Musée de Toulouse
일시 / 장소	2016년 9월 - 10월 한국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프랑스 Cité de l'espace et Musée de Toulouse 2016년 11월 - 12월 과천국립과학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며 양국이 개발한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Water in Space"라는 제목 아래 양국의 우주과학관에서 공동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

동 전시회에서는 양국의 위성에서 촬영한 지구의 영상 가운데 특히 물 관련 영상을 선정해 한국의 나로우주센터와 프랑스의 시테 데 시앙스(Cité des Sciences)와 툴루즈 박물관(Musée de Toulouse)에서 2016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전시한다. 그리고 11월부터 두 달간 한국 과천국립과학관에서도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위성영상을 동영상으로 개발하여 양국의 우주과학관의 돔 영상관에서 상영할 계획도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우주기술협력의 결과물을 홍보하고 물과 우주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로보월드 박람회 프랑스관 행사 PAVILLON FRANCE SUR ROBOTWORLD

양국 주최기관 한국 - 주한 프랑스대사관 경제상무관실 / 프랑스 - INNOECHO

일시 / 장소 2016년 10월 서울/인천 (예정)

한국은 서비스 및 산업로봇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국가로서 국내 연구 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아래 한국로봇산업협회 (KAR) 와 프랑스 서비스로봇협회 (SYROBO) 는 수 년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프랑스 리옹에서 매년 개최되는 유럽 최대 서비스로봇 박람회인 이노로보 (INNOROBO)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통한 이익 창출을 도모해왔다.

한국은 모든 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로봇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며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제조업용 로봇이 차지하는 시장 비중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서비스로봇 협회(SYROBO)와 프랑스 산업로봇협회(AFRRI)가 합병함으로써 미래 프랑스 성장동력산업 범주에 속하는 <Communicate better> 슬로건에 부합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복잡한 하드웨어 기술로 구성된 로봇제작에는 앞서 있으나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혁신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불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양국 기업들 간의 실질적 협력 방안으로는 산업 협력 및 공동 개발 그리고 자원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2016 로보월드 전시회 내 프랑스관 설치를 통해 한국에 프랑스 로봇산업의 노하우를 알려 한불 양국이 상호보완적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렌치 테크 데이즈 인 코리아 : 한-불 혁신기술 비즈니스 포럼 FRENCH TECH DAYS IN KOREA - FORUM D'AFFAIRES FRANCO-COREEN

양국 주최기관 비즈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

일시 / 장소 2016년 5월 30일(월) -31일(화) 서울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에 양국의 정부 기관과 기업이 참석하여 산업, 서비스, 건강, 첨단기술도시(에너지, 환경, 운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프랑스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들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30-40여 개의 프랑스 유망 중소기업들이 동 행사에 참여하여 프랑스의 혁신기술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6년 프랑스-일본 혁신의 해를 맞아 프랑스의 우수기업들이 한국과 일본에 연이은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프랑스 혁신 기술과 전문 지식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동 행사를 통해 프랑스의 산업 기술력과 한국의 혁신 경제 간 협력 증진을 통해 양자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서비스 전문 산업, 건강산업, 환경/첨단기술도시, 통신/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즈니스 프랑스는 프렌치 테크 데이즈 행사를 통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소개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불 스마트 도시 포럼

FORUM FRANCO-COREEN SUR LES TECHNOLOGIES LIEES AUX VILLES INTELLIGENTES

양국 주최기관 비즈니스 프랑스, 스마트 메트로폴리스 허브(Pôle Advancity)

일시 / 장소 2016년 하반기 서울 예정

프랑스 스마트 메트로 폴리스 허브(Pôle Advancity)는 한국 내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기술 협력 및 연구개발 협력을 도모하고자 2016년 하반기에 <한-불 스마트 도시 기술 포럼>을 계획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도시지역 에너지 관리 및 최적화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한국 정부 및 지자체 대표와 프랑스 정부, 대학,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다.

또한 교통(Mov'eo, LUTB, I-Trans), 정보통신기술(Cap Digital, Systématique), 에너지 (Energivie, Capenergies, Derbi), 소재, 화학, 환경(Axelera)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 산업별 클러스터도 초청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내 관계 기관 및 연구소 또는 기업들과의 미팅 및 현장시찰, 관련 기업 간의 B2B 미팅 등도 진행한다.

2016 한-불 해양기술 포럼

MISSION PARTENARIALE / FORUM FRANCO-COREEN SUR LES TECHNOLOGIES LIEES A LA MER

양국 주최기관 비즈니스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 해양 클러스터 (Pôle Mer Bretagne Atlantique)

일시 / 장소 2016년 7월 4일(월) -7(목) 서울, 부산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역 해양 클러스터 (Pôles Mer Bretagne Atlantique et Méditerranée)는 한국의 관련 기관들과의 관계증진과 기술교류 및 협력(기술 및 R&D 파트너십)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2016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파트너십 행사를 진행한다. 본 행사는 세종시/대전(해양수산부 및 이노폴리스)과 조선·해양개발·해양안보 관련한 산업 및 연구교육활동이 활발한 부산에서 부산시청과의 협력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정부 측 대표(클러스터, 연구소), 학계,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대표단에 참석하게 된다. 다루게 될 주제는 해양안보, 정보통신기술과 해양, 해양 바이오기술 등이 있다. '한불 해양기술 포럼'을 통해서 한-불 전문가 간 교류와 기술 산업 및 R&D 분야 파트너십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포럼 외에도 2-3일 간 국내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또는 기업들과의 미팅 및 현장방문, 관련 업체간 B2B 미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디네 앙 블랑 (Dîner en Blanc)

양국 주최기관	디네 앙 블랑
일시 / 장소	2016년 6월 11일(토) 서울 / 2016년 9월 3일(토) 부산

'디네 앙 블랑(Dîner en Blanc)'은 1988년 프랑스어 파스키에가 파리에서 처음 시작한 팝업 피크닉으로, 파리에서만 1만5천명, 전 세계 36개국의 65개 도시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글로벌 이벤트다.

초청받은 게스트부터 우선 참석할 수 있는 '시크릿 파티'라는 점, 게스트의 의상 및 소품 색상이 모두 '화이트'여야 한다는 점, 행사 장소는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비밀'에 부쳐진다는 점이 '디네 앙 블랑'만의 고유한 특징이며 재미 요소다.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최초로 프랑스 고유의 피크닉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서울과 부산을 대표하는 멋진 야외 공간에서 가까운 지인, 친구들과 함께 미식을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